

# 1회용 가스라이터와 충전식 전기면도기

험난한 FTA의 파고를 넘어야만 저쪽에 선진국이 보인다



寒梅山房主人 白甫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상임고문

## 새 해 아침의 기도문

단기 4340년, 서기 2007년 정해년의 새해 새아침에 천지신명에게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새천년의 21세기를 맞이한 이 지구촌은 기술과 과학문명이 발달하여 사람이 우주로 날아가서 달에 다 발자국을 남기고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가가호호 안마당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읽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변광대(無邊廣大)의 우주를, 태양계의 작은 별에 지나지 않는 지구촌의 우리 인간은 알 수 없고 오직 천지신명만이 총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좁고 작은 지구촌이 하루도 조용하고 평화로운 날이 없고 이 집, 저 집에서 유혈이 낭자하여 살벌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이 지구촌에 평화가 정착하도록 기구하나이다. 평화가 깃들자면 가가호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특히 핵무기를 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비옵나이다. 모든 종교를 통 털어서 살생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가는 공통된 교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살상무기를 인간이 스스로 깨달아서 모두 트랙터와 같은 농기계

와 농기구로 개조하여 저 황량한 사막과 불모지를 개간하여 이용되게 하시고 날로 황폐화되어 가는 자연환경을 복원시키고 보존하는데 이용하도록 천지신명이시여! 인도하여 주시길 비옵나이다. 가가호호 신무기를 개발하고 만드는데 드는 돈을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흰둥이 집이나, 검둥이 집이나, 누렁둥이 집이나 모두가 화합하고 평화롭게 사는데 쓰이도록 천지신명이시여! 간절히 기구하나이다. 천지신명의 존재를 믿지 않는 무리는 그렇다 치고 만교동근(萬教同根)이라 하였는데 어이하여 종교와 종교끼리, 같은 종교의 종파와 종파끼리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고 있으니 천지신명이시여! 이 싸움을 떼어말려 주시고 천상에서 지구촌에 종교를 퍼뜨린 모든 성자님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서 평화회의를 주재하시고 이 지구촌에 평화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기구하나이다. 평화를 사랑하는 저희집안 배달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구국의 훌륭한 인물을 내려 보내 주셨습니다. 올해 대통령선거에서도 그런 인물이 당선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구하나이다.

## 서로 오갈 수도 없었던 긴긴 냉전시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곧바로 동서냉전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군비경쟁이 벌어졌다. 서로의 내왕도 부자유로웠다. 한국 사람이 여권을 들고 북한은 물론 구소련이나 중화인민공화국을 여행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서방에서 동쪽을 부를 때 '철의 장막'이라 했고 중화인민공화국은 약칭 '중공'으로, '죽의 장막'이라 불려왔다. 이제 한국에서 '중공'을 '중국'이라 부르고 '중국'이라 불러오든 중화민국을 '대만'으로 부르고 있다.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 불과 얼마 전이던가. 국제정세와 국제관계는 이처럼 냉혹한 것이다.

미국이 닉슨대통령 시대에 죽의 장막인 중국과 국교를 튼 것은 탁구의 교류가 그 단초가 되었다. 그래서 당시 '핑퐁외교의 성과'라고도 했다.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국교의 단초는 무엇이었나 하고 필자 나름으로 회고하니 중국민항기의 춘천불시착사건이고 이듬해 서울에서 열린 86아시아게임과 88올림픽이 아닌가 생각된다. 불과 20년 전의 일이다. 정식 국교가 수립 된지 올해로 15년이다. 이 짧은 동안에 한국과 중국의 모든 면의 교류와 교역량은 엄청나다. 이제 한국과 중국은 미우나 고우나, 떼려야 뗄 수 없는 튼튼한 유대로 맺어진 관계로 발전하였다.

지금으로부터 꼭 20년 전인 1987년 가을에 오랜 교류와 친분이 있는 일본의 미카도화학주식회사의 石本正一 사장으로부터 국제전화가 걸려왔다. 우리 회사에 중국에서 시찰을 많이 오는데 이분들이 한국의 시설원예를 보고 싶어 하니 초청해 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리하여 농림부와 외무부 등 관련기관에 알아보니 대환영이었다. 일본의 石本 사장에게 회답하니 6명의 초청대상자 명단이 오고 초청장을

보내고 이듬해인 1988년 2월에 中國地膜覆蓋栽培 研究會 소속의 명함을 들고 臧成耀 단장 등 6명이 내한하였다. 우리로서는 귀한 진객들이라 전국의 시설원예지대와 제주도까지를 최선의 친절을 다해서 시찰과 관광안내를 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1989년에 답방의 초청장이 왔다. 당시는 일본에 주재하는 중국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발급받고 일본이나 홍콩을 경유해서 중국으로 가야한다. 우리일행은 일본을 경유해서 가려고 일본에 가서 중국으로 출발 직전에 천안문사건이 발생하여 되돌아와야 했다. 이듬해 1990년 5월에 다시 일본을 경유하여 북경과 장춘 → 연길 → 용정 → 상해 → 일본을 경유하여 귀국하였다. 일행의 단장의 중임을 맡은 내가 긴장도 하였지만 농업관련기관과 시험장, 관광지 등 가는 곳 마다 그야말로 칙사대접을 받았다. 이때의 견문들은 생략하거나 한두 가지만 놀란 사실을 소개한다. 환율로 환산하여 농산물과 물가, 인건비가 엄청나게 싸고 용정에서 시골의 우리교포들의 집단마을을 찾았을 때 내가 어릴 때의 농촌의 생활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를 찾아 준 중국지막복개재배연구회(우리식으로 풀이하면 '비닐멀칭재배연구회'이다)라는 단체소속의 인사들이 중국현지에서 알고 보니 중국농업부소속의 공무원들로 신분이 노출이 되었다.

## 국교도 없는 그 시절, 한·중 농업인들의 첫 교류

모두(冒頭)의 말이 길어졌지만 우리가 국교도 없는, 체제도 다른 중국에 처음 갈 때 선물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정보를 얻어 보니 약간 고급에 속하는 선물과 만나는 사람마다 선

심을 쓸 수 있는 수량 위주의 선물을 준비하라고 한다. 선물의 부피가 많아도 일행이 6명이니 짐 될 것은 없었다. 고급선물로는 전자손목시계, 전자계산기 등이고 수량 위주의 선물은 1회용 가스라이터와 여자용 나일론양말 등이었다. 두 종류의 선물 모두가 수량에 비해서 부피가 안 나가서 충분하게 꾸러서 준비를 하였다. 현지에서 여행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은 경이와 신비요, 대접은 예의를 갖춘 꾸집한 환대의 연속이었다. 그 이후로도 우리 전국농업기술자협회는 활발하게 중국과의 교류를 계속하고 있다. 필자도 서너 차례 더 중국을 방문하였고 갈 때마다 눈부신 발전상에 놀랐다. 한국과 중국은 국토, 인구 등등 기본통계를 비교할 수가 없다. 인천 건너편의 산동성 한 성의 인구가 남북한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많다. 중국에서 1회용 가스라이터와 나일론양말이 선물로 환영받던 시절이 지금으로부터 불과 17년 전의 일이다.

### 이제 중국의 가스라이터가 한국을 점령하였다

62년 전, 광복 전후에 물자가 궁핍하던 시절에 농촌에는 부식돌을 쓰고 있었고 불씨를 묻은 화로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막중한 임무가 만머느리에게 주어져 있었다. 라이터가 들어 온 것은 해방 후 한국에 진주한 미군에 의해서다. 한 손으로 라이터의 뚜껑을 젓히고 담배에 불을 당기는 미군병사들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던 것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한 때 온갖 모양의 값비싼 라이터가 사치품으로 취급되기도 하였다. 연료도 휘발유에서 가스로 바뀌었고 실용성과 값싼 1회용 라이터가 판을 치게 된 것이다.

1회용 가스라이터가 몽땅 중국제이고 값 또한 담

배 한 개비 값인 200원임을 아는지, 모르는지. 필자도 1회용 가스라이터를 애용하면서, 유통마진을 제하면 한 개에 200원의 이 가격이 내 머리의 계산으로는 타산이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얼마 전 친구들과 회식자리에서 화제로 올렸더니 한 친구가 “야! 이 친구야 자네는 정보의 먹통이군! 여기 놓여 있는 이쑤시개하며, 젓가락하며, 김치에 간장에 된장에다 고추장, 무말랭이 등등 몽땅 중국에서 수입된 물건들이야...” 나는 할 말이 없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대 중국교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지 않으나 고 대꾸를 하니 그 친구 말이 “...대 중국무역흑자도 시간문제야...”라고 힘주어 대답한다. 필자가 중국 현지에서 비교한 물가를 상기하니 납득이 간다.

### 중국제가 더 이상 저가에 저품질이 아니다

필자는 거의 매일 1호선 송내역에서 4호선 이촌역까지 전철로 오간다. 집에서 송내역까지 버스로 이동하는 시간을 포함해서 약 1시간 30분이 걸린다. 1호선의 남영역에서 인천까지는 지상으로 달리기 때문에 달리는 차창을 통해서 4계절의 변화와 풍경을 즐기는 재미도 즐거움의 하나이다. 또 하나의 볼거리는 이동하는 전철안의 광경이다. 구걸하는 장애인, 천당 가는 길을 설교하는 전도사(?), 시국의 울분을 티뜨리는 우국지사(?), 그리고 온갖 행상인들의 파는 물건을 선전하는 구변 좋은 화술이다. 이들의 선전이 때로는 내 귀를 즐겁게 해 주는가 하면 구매충동을 일으켜서 알팍한 내 호주머니를 열게도 한다. 구매충동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은 ‘어떻게 저렇게 값이 싼까?’ 이다. 이런 물건을 사들고 귀가 하여 싸게 산 것을 자랑을 하면 노처로부터 늘 핀잔이다. 앞으로 아예 이런 물건을 사갖고 오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를 받기도 한다. 그런 이후로는 전철안의 물건은 절대(?)로 안 산다고 굳게 작심을 한 바 있다. 그런데 6~7개월 전에 충전식 전기면도기를 팔러 다니고 있었다. 그 판매원의 솔깃하고 그럴싸한 제품설명 뒤에 “여러분! 이 면도기의 품질을 못 믿으시면 책임을 지기위해 내 명함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구매를 촉구한다. 나는 일제 충전용과 전지용 면도기 두 가지를 쓰고 있다. 글썽 충전용 전기면도기가 단 돈 5,000원이라? 동네 이발관에 가서 면도를 한번 해도 1만원인데? 내 굳은 작심이 흔들리고 한 개를 사고 말았다. 크기는 가로×세로×두께가 약 4×8×2cm이다. 써보니 이렇게 작고 예쁜 충전식면도기로서의 성능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저 그만이다. 불문가지가 아닌가? 중국제품이다. 필자가 더 놀란 사실은 전철 안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이 중국제품이고 판매가의 절반이 판매원의 차지라는 말이었다. 그렇다면 충전식 전기면도기 하나에 2,500원에 중국에서 수입되었단 말인가? 나는 무역업자도 제조업자도 아니지만 담배 한 갑 값에 불과한 돈으로 어떻게 만들어 내며, 수입해서 유통을 시킬 수 있단 말인가. 1회용 가스라이터와 충전식 전기면도기의 예로 비추어 볼 때 경쟁력을 전제로 하는 한·중 양국의 교역의 실상을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 FTA는 선진국으로 가는 통과증인가, 면허증인가

FTA로 나라 안이 온통 소란하다. 특히 한·미 FTA는 우리 농민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민감한 사안이다. 15년 전 우루과이라운드가 진행되고 있을 때 필자는 다자간 협상대상에서 농산물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농축산물은 공산품이나 여타 서비스상품과는 차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농축산물은 모든 나라 국민들의 생명의 원료인 먹거리이고 그 나라마다의 기후, 풍토와 역사적인 식문화의 소산이기 때문에 같은 잣대로 무역을 자유화할 수 없다. UN이나 WTO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식량의 무기화를 금지하는 결의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축산물의 수입국과 수출국 상호간의 필요한 양만큼 그리고 적절한 가격으로 수출입을 보장하면 될 것이다. 필자의 이런 주장과 논리가 그 때나 지금이나 통하지 않음을 잘 안다. 그렇다면 가격논리나 경쟁논리로는 해법도 없고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우리농민들의 생계를 정부가 책임을 저주면 된다. 한 가지 사족을 달자면 우루과이라운드의 대책으로 쏟아 부은 재원이 올바르게 쓰이는지와 정책이 옳았는가를 철저히 검증하여, 마련되어 있다는 119조원이 UR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 FTA의 험난한 파고를 넘어야 저쪽에 선진국이 기다린다고 필자는 믿는다. 그러므로 FTA는 선진국으로 가는 통과증일 수도 있고 면허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을 끝맺음하면서 중국 13억(?)인민의 추앙을 받으며 부도옹(不倒翁)이라는 관사가 붙은 등샤오핑(鄧小平)의 평범한 말 한마디가 중국을 오늘날과 같이 우뚝 일으켜 세웠음을 되새김질한다. 이른바 흑묘백묘론(黑貓白貓論)이란 네 글자이다. 이 네 글자에 담겨있는 철학은 비단 경제에만 적용될 말이 아니다. 이런 정치가가 한국에도 등장하길 기대하면서 제발 백성들을, 그리고 같은 정당 안에서 흑묘와 백묘로 편 갈라 세워서 싸움이나 시키지 말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㉞